



봉사로 짓는 인생 이모작

윤현철 · 5월 우수봉사자



제주에서 선택한 삶

코이카 한국어교육 해외봉사단원으로 이집트에서 활동 중 2020년 3월 말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계획 보다 일찍 귀국하게 되어 제주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국내 자원봉사활동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올레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의 해안과 오름을 걸으면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평온함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감사함을 갚는 마음으로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줍는 쓰레기 하나가 제주의 자연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일은 지금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서가 되어 초등학생을 만나다

평생을 교육에 몸담았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서귀포시 남원에 있는 의귀초등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도서관 명예사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62명,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친해진 아이들이 내미는 뽀뽀이 장난감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중고등학생 수업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돈만큼 귀한 재능기부

명예퇴직 후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후, 재능 기부를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기부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봉사대상자들로부터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두 번째 삶

명예퇴직을 할 당시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은 봉사로 채워진 나의 '인생 이모작'이 있어 제 자신의 삶에 넉넉하게 만점을 줄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남을 위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도 감동적인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원봉사도 MZ세대, 우리가 뜬다!

강민혁 · 서귀포동백청년봉사회장



현재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활동 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3,444명(60.7%)으로 다수의 분포를 이루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는 3,705명(22.8)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대는 2,397명(6.2%)으로 향후 자원봉사의 미래세대가 암울하기만 하다.

그러한 가운데 소위 MZ세대로 불리는, 20대가 주축이 된 서귀포동백청년회를 지난해 창립했다.

우리 구성원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한참 영위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으로 휴일이면 남들처럼 친구들과 한참 놀고 싶은 그런 나이지만, 자원봉사 모집 요청에 군소리(?) 없이 일감을 가리지 않고 응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일시 멈춤' 자원봉사 환경 속에서도 예술의 전당과 김정문화회관에서의 각종 공연장 안내와 주차질서,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을 펼쳤었고,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이삿짐, 폐가구 수거 자원봉사활동 등 장르를 넘나들며 팔을 걷어붙여 타 봉사단체로부터 누가 되지 않도록 해왔다.

앞으로도 일과 봉사를 양립하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젊은 세대를 가입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자원봉사 참여 연령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는데 청년 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래를 짊어져 나아갈 세대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이는바 우리들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나가겠지만, 센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MZ세대 발굴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긍정의 힘- 나눔으로 든든한 버팀목 되어주길-

고기봉 ·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서귀포지역 대표



“꿈이 뭐니?”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받던 질문이다. 어른들의 질문에 ‘내 꿈은 뭘까’ 고민도 하고, ‘꼭 꿈을 가져야 하는 걸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사람이 살면서 꿈을 꿀 수 있다는 건 삶을 긍정적이며 풍요롭게 한다. 꿈이 있으면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기의 꿈은 그 어떤 시기의 꿈보다 중요하다.

꿈은 미래를 희망하며 ‘지금, 여기’의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에 미래 세대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심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타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심리학 용어로서, 긍정적인 기대나 칭찬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기대를 받을 경우, 그러한 기대에 부응해 긍정적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향성을 말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심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가정에서 긍정적인 언어와 분위기를 접하는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인성 측면이나 성과 측면에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인생에서 다양한 도전과 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성공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한두 번 실패의 경험을 갖곤 한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된다. 실패에 휩싸여 자신을 부정적인 환경에 가두어 버린다면 결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이런 매일수룩 긍정적인 심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긍정 에너지를 통해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분에게 긍정적인 심리를 퍼트리는 전도사가 되었으면 한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과 사람 간에 관계유지에도 이해심, 배려심으로 먼저 양보하고 위해 주는 마음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오염돼 썩어가듯 사람의 마음과 행동의 움직임이 정지되면 실천하려는 마음속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다고 한다. 세상과 사람들 속에 상처받기 두려워 마음을 가둬 놓고 잡초를 무성히 키울 바에야 차라리 자원봉사를 통해 함께 어울리는 세상에서 마음속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끝으로 가을이 좀 더 깊어지면 시린 겨울이 온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고단한 계절이다. 이번 겨울엔 주변을 돌아보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본다. 코로나 19의 긴 터널 끝,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비우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함께 새로운 희망을 그리는 겨울이 되었으면 한다. 

‘자원봉사’와의 행복했던 추억 여행

고선심 · 前)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17년간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다 지난 6월 30일자로 사무국장직에서 정년을 맞아 퇴직하였다. 이전에는 지역의 부녀회장으로, 봉사회 모임으로 지내다 센터와 인연을 맺은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기초자치권 시절인 2003년 8월, 서귀포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되고 2005년 5월, 동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되는 현장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같은 해 12월에 실시된 특별자치도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듬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구)서귀포시와 (구)남제주군을 통합한 현장에도 함께 했다.

2010년 4월, 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의 월드컵경기장으로 새로운 등지를 틀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네 분의 센터장님을 모셨다.

2012년 11월, IBK 중소기업 은행으로부터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기증받아 시작된 매주 화요일의 밥차 사업은 9년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은 제주 유일의 트랜드로 자리매김하였다.

전국 최초 1호 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때의 기쁨이 어느새 10년이 다가오면서 일몰 사업의 위기는 나의 정년 시기와 맞닥뜨려졌지만, 김태엽 서귀포시장님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혁신도시에 입주된 공무원연금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협력지원금은 ‘중단없는 밥차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서 행복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내에서의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해외 유니세프 봉사활동에도 눈을 돌려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을 넓혀드리고자 몽골 집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캄보디아 고아학교 책걸상 교체사업, 미얀마 학교 개선사업 등도 참으로 보람이 있었던 행복한 순간이다. 아이들과 운동회를 개최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갔던 짧은 시간을 뒤로 하고 돌아서는 발길에 옷소매를 부여잡고 초롱초롱 눈망울에서 흘렸던 아이들의 눈시울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코로나19의 사태 속에 당분간 찾을 수 없겠지만 내 생애 꼭 그들을 다시 만나 보고 싶다.

17년을 센터에서 일하면서 생겼던 희로애락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점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후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미안하기 그지없다.

우리는 지난 두 해를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맞이했다. 자원봉사 물결운동마저 위축된 시기였지만, 마스크를 손수 만들어 나눠드리고 방역 최일선 현장과 백신접종 의료지원에도 우리 봉사자들을 배치하면서 힘겹게 보낸 끝에 드디어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시기를 맞이했다. 평생을 자원봉사에 몸담았으면서도 ‘자원봉사’라는 그 위대한 이름 앞에 새삼 고개를 숙여보며, 5만여 자원봉사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보낸다.

퇴임 시기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성숙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퇴임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자원봉사와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다.

오늘도 축제장에서, 행사장에서, 의료지원 현장에서 교통안전 봉사과 재능기부 봉사과 어르신 돌봄 봉사과 클린 환경 봉사과 시민의식 개혁 캠페인 봉사과 해안변 및 생활 쓰레기 수거 환경 개선 봉사과 방역 봉사 등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고의 자원이 아닐 수 없다.

봉사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원봉사’ 라는 그 위대한 이름 앞에

이경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부회장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는 자원봉사 물결운동마저 ‘잠시 멈춤’으로 세상을 뒤덮어 버렸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따르면 자원봉사 참여 인원은 코로나 이전(2019년) 4백2십만 명에서 코로나 이후(2020년) 2백2십만 명으로 절반 수준이나 줄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자원봉사의 손길을 결코 멈춰서는 아니 될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를 비롯한 홀로 사는 어르신들마저 ‘멈춤’ 현상에 의해 힘겨운 일상과 소외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백신예방 접종센터와 의료원, 서귀포보건소에서 안내 봉사과 더불어 어려운 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역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하였으며,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된 사랑의 밥차봉사는 식료품 키트로 대체하여 왔다.

식료품 키트는 햇반, 곰탕, 즉석 카레, 전복죽, 참치, 맛김 등 식재료로 부족함 없이 알차게 꾸렸으며, 특히 코로나 19가 극심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돌입된 9월부터는 일일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배부해 드렸다. 1일 300여 가구에 달하면서 연인원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다. 누군가에게는 한 끼 식사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까지도 책임지겠다는 자원봉사자의 위대한 열정과 정신이 빚어낸 참으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섰다. 그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한 순간이었는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가 완전히 완전히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리라 다짐해 본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이지만, 힘겨운 나날을 견뎌내는 최고의 원동력은 자원봉사의 힘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를 빌어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봉사, 하늘이 준 가장 큰 복

문경옥 ·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먼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활동을 담은 보고서 발간을 축하합니다. 서귀포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다양한 사업을 함께 펼쳐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 봉사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의 밥차 운영, 어려운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문화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의 폭넓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 문화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되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헬렌켈러는 “남을 위한 인생을 살 때, 가장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저에게도 자원봉사를 하는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도움을 주는 사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건강할 때 나눌 수 있을 때 봉사를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성산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원으로써 우리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 자원을 발굴하는데 힘써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주민들을 돕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올 한해도 변함없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자원봉사로 실천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 애정으로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자원봉사 현장 곳곳에 환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 자원봉사활동

양지성 · 삼성여자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양지성이라고 합니다. 교직 생활을 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저도 작년보다는 원격 수업도 익숙해지고,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활동도 마찬가지겠지요.

저는 학창 시절에 교육봉사로 지역 아동 지원 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한 여러 초등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수학, 과학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축구나 피구도 하고 오름도 같이 오르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는 원래 봉사는 남을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으나,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활동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학생들이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는 일념으로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여러 교내 봉사활동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 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위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기사와 봉사 관련 홈페이지들을 조사하던 중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현 시국에 맞는 비대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센터에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센터 측에서는 관련된 정보를 흔쾌히 공유해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 중심의 봉사활동을 기획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병을 업사이클링하는 함께 투명할래 활동, 서귀포시 자원봉사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아카이브 활동, 지역 안전 미담을 실천하는 지역 안전 지키미 활동 등, 학생들이 다방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풀어주자 1학년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고, 특히 6회에 걸친 함께 투명할래 활동에서 큰 페트병(1.5L 이상)과 작은 페트병(1.5L 미만)을 합하여 회당 평균 1,000개 정도의 페트병을 수거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뉴스 기사에 실리기도 했죠. 이는 아이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개인 실천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봉사임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아이들이 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생활 속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도하겠습니다. 



페트병의 역습

김대흠 · 서귀북초등학교 주무관, 아라누리 운영팀장



몇 년 전, 일본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에서 페트병 음료수를 마시고 버리려 분리배출함 앞에 갔는데 평소처럼 내용물을 다 마시고 분리배출함만 잘 찾아서 버리려 두리번거렸는데 페트병 수거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해서 버려져 있었고, 뚜껑도 따로 모아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마신 페트병을 자세히 보니 라벨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었다. 재활용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리 배출하는 모습이 역시 일본답다고 느꼈다, 그 후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양의 페트병이 발생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국민들이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재활용되지 않는 색깔이 들어가 있는 페트병이 모두 투명으로 바뀌고, 라벨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무라벨 생수도 시판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플라스틱 병 종류도 한가지 재질로 통합하여 생산하는 등 재활용을 높이려는 시도를 정부 정책 그리고 기업과 국민이 하나 되어 노력하는 모습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라누리는 정기적으로 서귀포 관내 해안가를 순회하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까지 꾸준히 실시하였다. 자동차로 해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제주의 바다는 아름답고 정말 좋고, 해외 어디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경치라고 자부하지만 막상 해안가에 가서 자세히 보면 검은색 돌 틈 사이로 엄청난 쓰레기 무단투기와 파도에 쓰레기가 밀려와 있다. 그중 제일 많이 수거하는 쓰레기가 페트병이다. 음료를 마시면서 바다를 보는 건 나도 좋아하는 일상이고 제주에 살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만 각종 음료수, 생수병, 테이크 아웃 커피잔 그리고 바다에서 밀려온 변색된 페트병까지 생각보다 정말 많다. 어느 날은 마라도까지 가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였는데 열댓 명이 두세 시간을 쓰레기와 씨름한 결과 1톤 트럭이 꽉 찰 정도 페트병을 수거한 적도 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까지 페트병으로 몸살을 앓는 모습이었다.





서귀북초등학교에서는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매월 마지막 날 페트병을 수거하여 서귀포시청에 전달하고 있다. 전교생과 학부모에게 라벨을 제거한 페트병을 모아서 등굣길에 가져오면 교직원과 학부모회가 수거한다는 안내가 나가고, 처음으로 수거 한 날 엄청난 양의 페트병을 보고 입이 벌어졌다. 물론 서귀포 시내에서 제법 학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학교라고는 하지만 1톤 트럭 서넛 대 이상 분량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 너무 많은 페트병에 수거하는 인력, 장비 등이 처음이어서 힘들고 부족했지만 서귀포자원봉사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서귀포시청과 협력하여 점차 개선되었고 배출함도 만들어 매월 수거 시 사용하고 있다. 배출함을 중앙현관에 배치하여 상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페트병 분리배출을 생활화 할 수 있게 되었고, 고정희 교장 선생님께서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폐건전지를 투명 페트병과 함께 수거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폐건전지도 페트병과 함께 수거하고 있고, 때마침 건전지 또한 서귀포시청에 적극적으로 수거하는 중이어서 잘 전달하고 있다.

나는 술보다 커피를 좋아한다. 그래서 커피를 자주 마신다. 매장에서 먹지만 차에서 주문하면 편하고 이동 중에도 마시는 일이 많아서 일회용 컵으로 많이 마셨지만 투명 페트병을 수거하면서부터 텀블러를 들고 다니며 커피를 주문하고, 학교에서도 개인 머그잔 사용으로 종이컵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무심코 하던 쓰레기 무단 투기도 이제는 하지 않는다. 쓰레기를 줍고, 수거하고 몇 번 해보니 알겠더라.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봉사자의 마음먹기

변정철 · 서귀포불교자비봉사회



부처님이 경전 중 <화엄경>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즉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뜻이 랍니다.

지금 전혀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상당한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년여의 코로나 상황이 평상시였으면 평범한 삶의 일상이었을 가족과의 제례, 친구, 지인들과의 소소한 만남, 차한잔의 여유, 삶을 회복시키는 여행 등을 멈추게 하였지만 한편의 마음으론 그 평범한 일상을 소중하게 하여 코로나 19 이후의 우리 삶을 더욱 가치있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도 더욱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어로 “어신 집이 시계(제사)도 빨리 돌아온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복지수요대상자분들께서 이 상황이 더욱 어렵고 외로울 터 이고 그만큼 우리의 역할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같은 것을 동시에 바라보는 데에도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에 차후에 소중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세상을 함께 하려면 지금 그분들과 눈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며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준비를 차분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 분들이 마음가짐과 봉사실천이 더욱 중하겠지요.

지금의 현실을 추억으로 만들고 그 더없이 소중하고 편안한 일상을 너나없이 함께 공유하기 위하여는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스포츠의 메카 서귀포시의 빛나는 이름, 자원봉사

양예란 · 서귀포시 체육진흥과장



2021. 11. 6(토) 트레일러너들과 함께 뛰는 자원봉사자

11월 서귀포시 일원에서 개최되는「제주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대회」는 치유의 숲, 영실, 돈내코 등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산과 오솔길을 달리는 산악마라톤대회이다. 트레일러너들에게 50Km 구간은 서귀포시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는 길이자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일 것이다.

하지만 그 길에는 500명 선수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이들이 있다. 바로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분들이다. 올해 대회가 끝나고 나서 SNS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칭찬이 넘쳤다. ‘전 세계 트레일러닝대회에 참여해 봤지만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자원봉사자들은 처음’, ‘치유의 숲과 CP에서 고급진 서비스를 해주신 자원봉사자분들’, ‘내년 대회에서 또 만나요’ 등이다.

2021. 11. 14(일) 제1회 어울림생활체육대회의 든든한 동반자

11월 14일, 서귀포시에서는 의미있는 한걸음이 시작되었다.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8개 종목단체들이 함께 하는 제1회 서귀포시 어울림생활체육대회가 그것이다.

경기장에서 종목별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정성과 경험이 필요한 대회였고, 서귀포시 자원봉사자들의 노하우와 따뜻한 정성은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든든한 동반자였다.

Again 스포츠 메카도시 서귀포시

우리는 한반도 최남단의 작은 도시 서귀포시를 스포츠 메카도시로 키워 온 저력이 있다. 그 저변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의 열정이 큰 몫을 해왔다고 믿는다. 늘 감사드린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서귀포시에서는 국제·전국단위 스포츠대회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지금, 코로나로 위축된 명성을 회복하는 길에 자원봉사자분들이 빛나는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 



콩트

접속

강문상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민수는 약속장소에서 쿵덕거리는 가슴을 억제하며 이제 곧, 나타날 그녀를 향해 한없는 상상의 나라를 펼쳤다.

“아! 그녀의 모습은 선녀일까, 아니면 백설 공주?, 자원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아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모습일 거야”

이러한 상상에 낮이 빠져 있는데 팔순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다가와 민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할머님, 제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혹, 젊은이가 민순감?”

“아니 할머니께서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민수는 어릴 때 뒤뜰 대나무밭에서 도깨비불을 본 것처럼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다.

“아이고마. 제대로 찾긴 찾았구먼. 이보게!, 이 할미가 수경이여. 젊은이가 1년 동안 내게 늘상 사랑해! 사랑해 했잖았남”

“예? 그러면 설마 할머니께서 저와 1년 동안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그 수경씨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한 방송사 라디오 프로그램의 PD인 민수는 그날도 여러 통의 애청자가 보내준 사연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사연에 손이 갔다.

사연에는 휴일이면 어김없이 양로원을 찾아 이불 빨래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수발은 물론 목욕을 도맡으면서 벌어지는 겁장 어린 봉사 이야기와 그분들로부터 들려주는 인생 삶의 애환이 구구절절 담겨 있었다. 그 첫 사연이 방송을 타면서 애청자들로부터 자원봉사를 실천하는 사연의 주인공이 궁금하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았던 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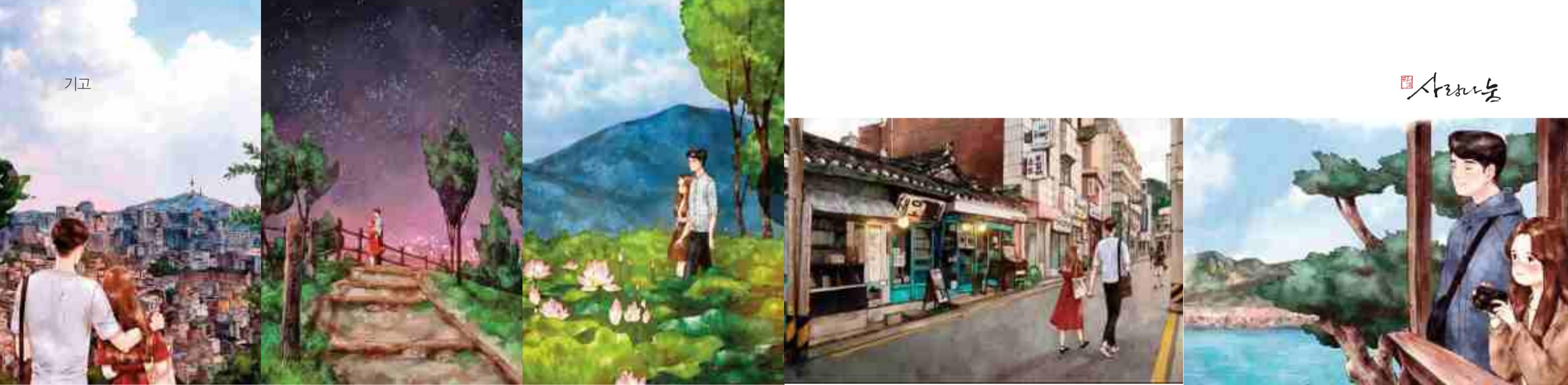
민수는 사연의 주인공이 미혼인 여성으로서, 따뜻한 천사의 미소를 머금은 자신의 이상형일 것이라 짐작했다. 왜냐하면 방송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터득된 직관도 그렇거니와 ‘할아버지들을 씻겨드릴 수 없어 남성 자원봉사자가 함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메일 속 사연이 웬지 민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이메일 회신을 보냈는데 그녀에게서 답장이 왔다. ‘자원봉사의 순수성을 가진 따뜻한 남성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온라인 접속은 1년이 흐르면서도 그저 이름은 ‘수경’ 이란 것 외에 오프라인상에는 좀처럼 만남이 허용되지 않았다. 만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라는 그 아름다움을 실천하겠다는 내면의 순수성만으로도 소중한다는 그녀의 완곡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만 없었던 민수는 만남을 제의하였





다. 첫 만남을 위해 자신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을 테니 이메일 사연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원봉사의 현장인 그 양로원 입구에서 만나자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그토록 궁금했던 사연의 주인공이 팔순의 노파였다니 까무러칠 순간이 아닌가?

한순간에 모든 꿈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민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돌아서며 주머니 속의 담배 한 개비를 꺼내려는데 무언가 불쑥 손에 짚이는 게 있었다. 그것은 수경씨, 아니 아까 할머니께서 보낸 최근의 마지막 이메일을 프린트한 종잇장이었다.

- 이제 지난 1년여 이메일 접촉을 뒤로 하고 민수씨와 만나는 설레는 날이 다가왔군요. 그러나 첫 만남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원봉사라는 순수성까지 부정하지는 말아주세요 -

민수는 이 글을 다시 읽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원래 심성이 착한 민수는 여태껏 자신에게 쏟은 이메일 속의 주인공, 그 할머니가 보내온 지난 1년의 주옥같은 사연을 실천한 나눔과 정성을 생각했다.

“그래, 이래서는 안 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할머니 시면 어때. 그 아름다운 사연이 얼마나 많은 애청자와 나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던가? 이것 때문에 나눔 실천이 끊겨서는 안 돼.”

뒤돌아 온 길을 단숨에 달려간 민수는 할머니 앞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못난 사람, 일 없으니, 그만 가 보게나. 그저 곁만 보고 평가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할머니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지만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이때다 싶어 민수는 옷매무새로 정성껏 닦아 주었다.

“할머니! 더우시죠.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어요. 방송일을 하면서 꼬박꼬박 보내주신 할머니의 이메일이 저에겐 크나큰 위안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잠시 잊은 저의 못난 행동을 용서해주세요. 자~ 제 등에 업혀보세요”

못 이기는 척, 할머니의 환심을 어렵게 산 민수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훑날리는 거리를 걸었다.

“할머니! 컴퓨터는 언제 배우셨어요? 암튼 뭐 어때요? 앞으로 할머니를 제 가슴 속에 가장 아름다운 수경씨로 간직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 양로원 봉사에 같이 가세요”

“그러, 고맙구먼, 이 할미 이래 봐도 마음만은 청춘이여”

한바탕 웃음을 터트리며 가까운 제과점을 찾아 이가 없어도 사르르 녹을 듯한 팥빙수 두 개를 시켰다.

“아니 왜 두 개인갑, 세 개를 시켜야지.”

“아니, 두 그릇씩이나 드시게요?”

의아한 민수의 표정과 는 달리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신 할머니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잠시 눈을 감고 허공을 멍하

니 쳐다보시더니 흘리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말문을 열었다.

“에그, 하늘도 무심하게. 저 어린 핏덩어리를 남겨두고 먼저 가다니, 그 후 이 할미는 어린 손자를 업고 별의별 장사를 다 했지. 그 설움이야 어찌 말로 다 하라마는 손녀 자식이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할 때, 마~ 마~”

흘러내리는 빗물 같은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아리따운 아가씨가 다가왔다.

“할머니! 고정하세요. 할머니!”

돌아가는 전후 사정을 어렵짐작한 민수가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그럼 이 아가씨가 할머니의 손녀분? 아니, 수경씨?”

“네, 맞아요. 제가 지난 1년이란 세월 동안 방송에 사연을 보낸 수경이랍니다. 민수씨는 결코 진실을 외면해 버리지 않은 훌륭한 분이세요. 저의 마지막 사연에 적힌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

분이시라면 저를 이토록 키워주신 우리 할머니, 그리고 이 세상 모두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도 저버리지 않으시겠죠?”

순간, 감격의 눈물을 주체할 줄 몰랐던 민수는 수경을 끌어안으며 덩실덩실 뛰기 시작했다.

쑥스러운 수경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 시험을 해야만 했던 자신을 용서하라며 민수의 볼에 입맞춤했다.

“에구, 내가 주책이제”

할머니는 얼굴이 붉혀서인지 밖을 나서며 외쳐댔다.

“수경아! 니 신앙감은 참 잘 골랐데이. 이 할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데이~”

“아니, 할머니 같이 가요!”

뒤에 남은 둘은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의 손목을 움켜잡고 할머니 뒤를 따랐다. 

이 글은 86년 '공무원연금지'에 게재되었던 '진실'이란 필자의 자작 콩트로서, 당시에는 편팔을 주고받는 이야기 속 주인공에서, 이메일을 주고받는 현 시대적 상황으로 각색하였습니다.

- 강문상
- 현)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현)서귀포문인협회 회원
 - 저서)그 섬은 말모래기, 공무원의 魂



행복한 도시를 이끌어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원봉사선배를 응원합니다!
2021. 11. 26
정근순..

정근순
어우렁봉사단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긍정적인 생각과
의미있는 행동으로
행복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2021. 11. 26.
오지영

오지영
서귀포시자치행정과(자원봉사 담당)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서귀포시의 미래는 밝습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응원합니다!!
2021. 11. 26 김명숙

김명숙
소비자교육중앙회서귀포시지회
(총무)



코로나 19의 어려운 역경을 겪고
어려운을 극복하신 의료진과 자매회가
여러분 응원합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이 세울

이세열
서귀적십자봉사회



코로나 19에도 언제나 힘써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저도
보탬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2021. 11. 26 김주희

김주희
청소년자원봉사단 크루즈



항상 최선을 다하는 봉사인력
작은여러분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 화이팅 "
2021. 11. 26
백경숙

백경숙
천지여성의용소방대



서귀포자원봉사센터는
목마른 지역사회를
촉촉하게 적어주는
샘물입니다 화이팅!!
2021. 11. 29 김지석

김지석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사무국장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응원 합니다.
2021. 11. 29 안병식

안병식
가시리마을회
(산악마라톤)



늘 지원해 주는 봉사단체와
깃발심겨 주는 봉사센터가 있어
늘 응원합니다.
2021. 11. 24
오명순

오명순
삼성-나.너.우리봉사단



진은 봉사인들은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봉사가 즐겁습니다.
동백청년봉사회 회장
강민희
2021. 11. 24

강민희
서귀포동백청년봉사회



마음으로 아름다운 행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2021. 11. 25
강창문

강창문
서귀포JC 회장



자원봉사자가 이 시대의
기쁨입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강추여러분
서귀포의 희망입니다.
2021. 11. 24
서귀포리회 서귀포시지회

고기문
서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취미 활동을
이루어 내신 김두만 센터장님을 비롯한
센터직원들의 노력! 힘차게 응원합니다
無窮無盡 go! go! go!
우리봉사단이 창 물

이창웅
용흥마을회장



힘든 어려운 고난 시대의
극복은 우리 모두가
"배려"가 시작입니다!
새해 자원봉사 선배 여러분!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2021. 11. 26
변정현

변정현
운영위원회



서귀포시 자원봉사 센터 직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세대의
행복을 건드립니다. 화이팅!!
2021. 11. 29
서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양영일
서귀포시주민자치협의회장



코로나 시국에도 믿음을 사주어 주고
함께해주시는 자원봉사센터!
항상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2021. 11. 27 허선희

허선희
서귀포의료원 원무과장

2021년을 빛낸 자원봉사자

《편집실》



우수센터 선정 주역, 접종센터 현장에서 만난 그녀 '봉사'는 나의 천직이자 등불과도 같은 존재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활동 유형을 1365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거환경(25.9%) → 생활편의(20.9%) → 환경보호(14.7%) → 문화행사(8.6%) → 재해재난(7.5%) → 교육(4.1%) → 안전방법(1.5%) → 행정보조(1.3%) → 상담(0.3%) → 농어촌(0.2%) → 보건의료(0.1%) → 멘토링(0.1%) → 인권공익(0.1%) → 기타(14.7%)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봉사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어김없이 나타나는 봉사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센터 사무국 직원들에 따르면 “그녀는 주거환경 현장이건, 생활환경 현장이건, 환경 분야 현장이건 봉사가 있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한마디로 가히 봉사의 신(神)이라 칭해도 과장은 없을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그녀의 정체(?)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거주하는 강미자(64세, 여)씨로, 실제 그녀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로는 모다드림 팻! 팻! 봉사단을 비롯해 누리보듬봉사단, 토탈뷰티코디 전문자원봉사단, 서귀포여성발전연대, 해양오염방제단, 자연보호서귀포지회봉사단, 동홍동장애인지원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귀포지구협의회, 서귀적십자봉사회, 행복나눔봉사단 등 무려 10개의 봉사단체에 속해 있음이 증명해 주고 있었다.

봉사활동 수공 기간만 30년이 넘으면서 1365시스템을 통해 그간의 봉사 이력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행사 172회, 코로나 방역활동 56회, 재난재해 현장 지원 25회, 농촌지원활동 12회, 장애인 돌봄활동 226회, 노인 재가 봉사활동 171회, 헌혈 시민성 향상운동 69회, 청정환경 정화활동 154회, 백신접종 및 의료원 지원활동 154회, 소록로 및 해외 유니세프 20회, 전문봉사단 역량 강화활동 37회, 자원봉사 확산 문화활동 316회 등을 수행하면서 누적 6천여 봉사 시간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포상은 물론, 변변한 수상 이력도 없어 많은 봉사단체가 ‘국민추천 포상감’으로 손색이 없다며 이구동성이다.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슬하에 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그녀에 따르면 “항상 풍족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천직이자 등불과도 같은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내 생이 다하는 그 날까지 나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눔 실천에 이 한 몸 불태우겠다.”라는 각오를 들으면서 활활 타오르는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우수접종센터로 수상될 수 있는데 주역이었던 그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그 무엇이 이보다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예방접종지원 봉사활동 전국 우수센터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선정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동 주관한 예방접종지원 봉사활동 전국 우수센터에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두만)가 최종 선정되었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서귀포시 지역 어르신 백신접종이 첫 시작된 4월 22일부터 ‘서귀포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조직화하여 7월 종료시까지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지원구축에 한 몫을 다해 왔다. 여기에는 연인원 5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되었다.

특히 센터는 공무원연금공단, 농협중앙회 서귀포시지부 등 기업체와 더불어 수요처로 지정된 72개 마을,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협업체계를 구축한 가운데 접종센터, 서귀포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진 격려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던 활동프로그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접종센터 봉사활동에 나섰던 분들에 따르면 ‘어르신들로부터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건네면서 고마움을 전하더라’는 분과, ‘연신 손을 잡고 고마운 마음을 나름대로 표현하고 있어 코로나19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차마 뿌리칠 수 없었다’라는 분과 ‘귀가하는 시간에 비가 와서 교통약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했으나 기 등록된 사람만 이용된다는 이유로 거절돼 직접 집까지 모셔드렸다’라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기도 했다.

시상식은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의 상장과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한편, 센터는 지난 4월, 서귀포의료원과 업무협력을 체결한 가운데 누리보듬봉사단을 매일 투입하여 체온측정, 접수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를 빛낸 최고의 ‘아름다운 家’ 금장에 이해숙씨, 은장에 김복자씨, 동장에 이영미씨 선정

서귀포시(시장 김태업)는 올해 최고의 자원봉사로 금장에 이해숙씨(바르게살기운동 동홍동위원회), 은장에 김복자씨(성산읍새마을부녀회), 동장에 이영미씨(대정읍새마을부녀회)를 선정하였다.

특히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가 극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이어오면서 예년에 비해 활동시간이 다소 저조하지만, 그 값어치는 그 어느 해보다도 결코 뒤지지 않으리라 본다.

서귀포시는 이들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리기 위하여 거주지에 ‘아름다운 家’ 현판을 새겨 부착해 드렸다.

‘아름다운 家’에 선정되는 금·은·동장이란?

그동안 우수봉사자를 매월 선정하고 시상하는 ‘이달의 우수봉사자상’ 만으로는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격려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서귀포시는 한 해를 총결산하여 최고의 우수봉사자를 선정, 금·은·동장을 시상하는 한편, 수상자 자택에 ‘아름다운 家’ 동판을 부착하여 오래도록 기리고자 지난 2011년 첫 제정되었다. 이에 따른 선정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1차 추천을 받아 서귀포시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로부터 심의 후 선정되는 절차로서 현재까지 30명의 봉사자를 배출하였다.

3인의 수상자 인터뷰



Q 올해를 통틀어 서귀포시에서 선정하고 있는 ‘아름다운 家’ 금·은·동장 수상자로 선정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각자 수상 소감 한 말씀씩 해 주시죠.

Q 잘 아시다시피 전년에 이어 올해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자원봉사마저 위축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수상자님들처럼 한해 500시간 내외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주로 어떤 봉사를 하였는지요?



금장 수상자 이해숙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자원봉사 시간이 조금 더 충족되었다는 것일 뿐, 저보다 자원봉사에 열정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동홍동위원회 사무장을 비롯한 10여개 봉사단체를 맡으면서 백신접종 예방센터 자원봉사를 비롯한 지역사회 현안인 환경문제 등에 중점을 둔 결과 올해 532시간(누적 4,066시간)을 기록했습니다.

현관에 설치된 ‘아름다운 家’ 현판이 부끄럽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에 열정적으로 매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은장 수상자 김복자

이 상은 오늘도 자원봉사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봉사자님들을 대표하여 받은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에 더욱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성산읍부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예년처럼 자원순환 프로젝트인 환경분야를 비롯한 사회복지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올해 423시간(누적 1,849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수상과 더불어 문앞에 ‘아름다운 家’ 현판이 부착되었는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웃사랑 실천과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열정적으로 매진해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동장 수상자 이영미

수상소식을 접하고 기쁨보다는 앞으로 더욱 정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의 경우 대정읍부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환경분야를 비롯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를 총망라한 끝에 올해 395시간(누적 3,603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위축되었던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다양하게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월별 최고 봉사자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데 3월 우수봉사자로 김현주씨, 4월 우수봉사자로 지신숙씨, 5월 우수봉사자로 윤현철씨, 6월 우수봉사자로 정금순씨, 7월 우수봉사자로 이자섭씨, 10월 우수봉사자로 김상철씨, 11월 우수봉사자로 강용철씨가 선정되었다.



3월 우수봉사자 김현주



4월 우수봉사자 지신숙



5월 우수봉사자 윤현철



6월 우수봉사자 정금순



7월 우수봉사자 이자섭



10월 우수봉사자 김상철



11월 우수봉사자 강용철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

성명	소속	비고
현인수	누리보듬봉사단	서귀포의료원개원기념
백경숙	천지여성의용소방대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정정화	아이돌봉사회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강영희	모다드림팍팍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윤복자	서귀포시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박묘자	사랑하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강은호	서귀포경찰서모범운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최영순	공무원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강애숙	서귀직할여성의용소방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정금순	어우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고은열	신천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정영미	성산리새마을부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강용철	폴리스봉사단 서귀포시지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단체	서귀북초등학교	환경유공자
단체	삼성 나-너 우리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평가회

서귀포시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고희열	서귀포시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양성평등주간기념
박묘자	사랑하늬	양성평등주간기념
좌경숙	성산읍삼달1리새마을부녀회	양성평등주간기념
단체	서귀포청년회의소	50주년 기념사업 차량기증(감사패)
고경량	천지여성의용소방대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이용경	사랑하늬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단체	바르게살기서귀포시지회	우수포상수여식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성명	소속	비고
오빛찬	서귀포동백청년봉사회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오봉옥	어우렁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변용철	서귀포시주정차봉사대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축하합니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이창순	누리보듬봉사단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조정수	제주올레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김주희	삼성여고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김성범	서귀사랑봉사회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조현빈	남주고등학교	2021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유경숙	누리보듬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강금자	서귀사랑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김난숙	제주안덕로타리클럽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단체	서귀포오석학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서정민	아름다운가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윤덕철	대정읍자율방재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단체	삼성여자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홍기영	바르게살기대정읍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장 표창

성명	소속	비고
배미라	서귀적십자봉사회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강경애	서귀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고세준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정영심	대정읍새마을부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김민규	남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장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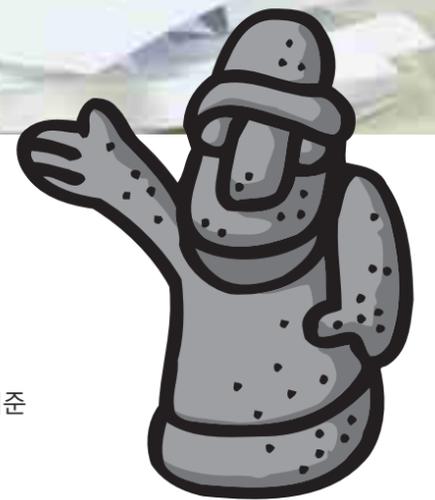
성명	소속	비고
김영숙	소비자교육중앙회서귀포시지회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서희경	국공립국제교육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임현정	사랑하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자대회
홍지연	효돈여성이용소방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김정수	누리보듬봉사단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평가회

포상종류	성명	소속	비고
우수봉사자	졸업생	관내중고등학교	
위촉장	운영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수료증	전문봉사단 수료증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양성과정	관내중고등학교	
	16기가족자원봉사단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가족자원봉사단 수료식
감사패	공무원연금공단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서귀포시자원봉사자의날기념

알아두기



- 자원봉사 수요처 인증기준
- 서귀포시 수요처 안내
-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안내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차감 기준
-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



자원봉사 수요처 인증기준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시설 중 자원봉사자 실적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

■ 수요처 등록기관

공공부분	공공부문	중앙정부 및 시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 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분	민간기관	공익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문화·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 등록

신청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 결과 회신



■ 부적절한 수요처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 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 (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서귀포시 수요처 안내

■ 시내권[동홍동, 서홍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재)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064-763-39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공립한울어린이집	064-762-663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로 82
담쟁이지역아동센터	064-732-33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홍중로27번길 30 1층
삼매봉도서관	064-760-367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성중로153번길 15
서귀포보건소	064-760-60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01번길 52
서홍동주민센터	064-760-47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25
아름다운가게서귀포점	064-762-009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67
(사)제주마을문화진흥원	070-8990-999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남로 24-4 3층
동신타이디온지역아동센터	064-763-78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3
동홍동주민센터	064-760-470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 104
바르게살기운동서귀포시협의회	064-762-183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82번길 49
샘솟는지역아동센터	064-733-91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4 동홍빌딩 4층
서귀포기적의도서관	064-760-3725	서귀포시 일주동로 8593
서귀포도서관	064-762-4307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64-762-0211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9
풍납작은도서관	064-733-46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56
행복드림비전센터	064-733-94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25
(사)제주올레	064-762-21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 22 제주올레여행자센터 2층
보목곶터작은도서관	064-732-35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83-1 2층
서귀포YWCA	064-762-14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오석학교	064-762-24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동로 43-2
송산동 주민센터	064-760-45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암로 4
정방동사무소	064-760-45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태평로421번길 7
제주권역재활병원	064-730-912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로 1
중앙동주민센터	064-760-456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문동로 27
천지동주민센터	064-760-45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정로47번길 3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064-732-70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2 2층

■ 효돈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사)아동청소년보호협회서귀포시지회	064-732-00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신상로 60
하효마을회	064-767-301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효중앙로132
효돈동주민센터	064-760-46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선동산로 26
동부도서관	064-760-36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8232

■ 영천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미소노인복지센터	064-767-304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검은여로 175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64-732-23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24
영천동주민센터	064-760-465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15
제주한라전시관	064-710-686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돈내코로67번길 19

■ 중문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도서관운영사무소서부도서관	064-760-37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주민센터	064-760-48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100로 30
중문요양원	064-738-20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728번길 74
제주노인복지타운	064-738-231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서로670번길 4
국제평화재단	064-735-653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예래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색달노인복지센터	064-738-336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121번길 33
상예1동마을회	064-738-02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144번길42
서귀포시예래동주민센터	064-760-48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예래로 82

■ 대천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대천동주민센터	064-760-47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로 44
서귀포시드림스타트	064-760-64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97-1서귀포청소년수련관2층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	064-760-645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97-1 지하1층
용흥마을회	064-739-281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 67
용흥작은도서관	064-739-366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용흥로 55 2층
제주해군사랑작은도서관	064-905-524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640 2층

■ 대륜동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대륜동주민센터	064-760-47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관광협의회	064-739-720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 2층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064-738-01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 경기장내 2층
사회복지법인예사랑어린이집	064-738-13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상로 9
새서귀포마을회관	064-739-53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27번길 6-7
서귀포해양경찰서	064-793-25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호동마을회관	064-739-359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로 33
서호요양원	064-739-99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238번길 10
제남아동센터	064-739-10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호근로183-11
호근동마을회관	064-739-1938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호근남로 6

■ 안덕면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동광해바른작은도서관	064-794-22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100번길12
사계리사무소	064-794-26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중앙로 3
아름쟁가장기요양기관	064-792-50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2048번길237-1
안덕면상천리마을회	064-792-601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악로408-3
안덕면동광리사무소	064-794-87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로 126
안덕면사무소	064-760-43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74
안덕면상창리사무소	064-794-972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102
안덕면서광동리사무소	064-794-93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로17
안덕산방도서관	064-760-374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44

■ 표선면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가마지역아동센터	064-787-33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276 2층
성읍지역아동센터	064-787-824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5-2 표선수협 3층
토산2리사무소	064-787-330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중앙로16번길1
표선노인복지센터	064-787-01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10-29
표선면세화2리사무소	064-787-331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주동로 6276
표선면세화3리사무소	064-787-33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로 168
표선면표선리사무소	064-787-00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34
표선면가시리사무소	064-787-13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65번길 20
표선면사무소	064-760-44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중앙로 74
해병대표선전우회	064-787-707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관정로 73

■ 남원읍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남원노인복지타운	064-764-992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127
남원읍의귀리사무소	064-764-01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7
남원읍태흥3리사무소	064-764-01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삼덕로 3
남원읍하례2리사무소	064-733-41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돈야로 83
남원읍사무소	064-760-411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95
남원읍태흥2리사무소	064-764-01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신로14
동부보건소(주간보호센터)	064-760-61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527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064-764-44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381번길7-1
선광재가노인복지센터	064-764-09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480-15
신례1리마을회	064-767-244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중앙로 37
위미2리마을회	064-764-13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197
제남도서관	064-764-465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064-733-800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393-1

■ 성산읍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동부종합사회복지관	064-783-036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출로14-11
삼육지역아동센터	064-784-362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오조로130
성산리사무소	064-782-224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중앙로 46
성산읍고성리사무소	064-782-237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36
성산읍시흥리사무소	064-782-31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3916
성산읍신천리사무소	064-787-015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서로 5
성산읍신평리사무소	064-782-031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상동로4
신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64-760-429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5101
신평지역아동센터	064-782-957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평상동로14번길 6

■ 대정읍

수요처	전화번호	주소
(사)대정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064-794-449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9
국립국제교육원영어교육센터	064-793-525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304번길 35
대정읍동일1리사무소	064-794-22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99
대정읍구억리사무소	064-794-81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2362
대정읍보성리사무소	064-794-26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93-7
대정읍일과2리사무소	064-794-309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서림로8
대정읍사무소	064-760-401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송악도서관	064-798-68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
신평리사무소	064-794-362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2610
제주추서관	064-710-680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44
발자국화석관리소	064-710-680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형제해안로 192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 자원봉사자 종합보험이란?

자원봉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보험으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보험사업입니다.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 회원가입으로 자원봉사종합보험 지원받으세요!

■ 구비서류 안내

	기본서류
삼성화재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위임장
자원봉사자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병원	진단서(초진차트) 진료비 세부명세서 입·퇴원확인서
약국	약제비 영수증
소속자원봉사시행기관	자원봉사활동확인서

■ 상해보험 청구절차



■ 2021년 자원봉사 종합보험 보장내용(기간 : 2021.05.31.~2022.4.30.)

기본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 상세
상해사망(15세 미만 제외)	2억	자원봉사 활동중,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상해후유장애	2억	자원봉사 활동중,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의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
상해입원일당	7만	자원봉사 활동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상해통원일당	5만	자원봉사 활동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한도)
구내치료비(자연재해)	5천만	자원봉사 활동중,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상해 의료비 보장
화상진단비(2도이상)	2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이상)
화상수술비	2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골절진단비	2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포함)
골절수술비	2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골절 사고를 당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교통상해입원일당	5만	자원봉사 활동중, 교통사고(차량 운전중, 탑승중, 미탑승시)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1회 입원당 180일한도로 지급(1일부터)
헌혈후유증	1백만	대한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환자로 판정시
식중독보상금	1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
얼굴성형비용	5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 시, 수술 1cm당 14만원, 500만원 한도로 보상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	자원봉사 활동중,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보상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자원봉사 활동중,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어 관련법에 의거 의사상자로 판정될경우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시 보상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1억	자원봉사 활동중,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기본 보장내용	금액	보장내용 - 상세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자원봉사 활동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 또는 공판절차에 따른 재판 진행시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지원비용보장	5십만	자원봉사 활동중, 자동차자차 사고 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비용 보장
자연재해상해사망(15세미만제외)	5억	자원봉사 활동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폭발, 화재, 붕괴상해사망(15세미만제외)	5억	자원봉사활동중,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 붕괴, 침강또는 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5억	자원봉사활동 중,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의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정한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약관의 장애분류표에서 정한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
뺑소니, 무보험차상해 사망(15세미만제외)	5억	자원봉사 활동중,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애	5억	자원봉사 활동중,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에따라 보상, 약관의 장애분류표에서 정한지급률을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지급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억	주최자가 봉사활동 주최를 위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생산물배상(음식물)	5억	봉사처가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ex:음식물)" 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손해
주최자배상(영업배상)	2억	센터의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목적으로소유,사용,관리하는"개인정보" 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자원봉사종합보험 세부 보장내역

구분	보장담보	보장금액	주요내용
상 해 (21)	상해사망	2억	자원봉사 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15세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	2억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지급
	상해입원일당	5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1회 입원 당 180일 한도)
	상해통원일당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상(30일 한도)
	자원봉사 배상책임	3천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식중독보상금	1백만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4일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20일 한도)
	화상수술비	1백만	자원봉사활동 중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화상진단금(2도이상)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로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 이상)
	골절수술비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사고를 당하여 수술한 경우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골절진단금	6십만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 파절 제외)
	자연재해 상해사망	1억	자원봉사 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연한 상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장(15세미만 제외)
	상해흉터성형수술비	5백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시 보상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5백만	성폭력 범죄 피해 발생으로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성폭력범죄보상금	1천만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시 보상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특정전염병보상금	1백만	특정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으로 치료시 보상
	폭력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관에서 정한 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 피해 발생시 보상
	강력범죄발생보장	1백만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 발생시 보상
	상해사고응급내원진료비	3만	자원봉사활동 중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시 보상
	유괴·인신매매피해발생보장	1백만	약취와 유인의 죄에 의해 피해가 된 경우 보상
	교통상해입원일당	3만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배 상 (3)	주최자배상(영업배상)	5억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구내치료비 (정신치료비 포함)	3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타인이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비 보상(정신치료비 포함 1백만 한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2천만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15세 이상 1인 단가		760원(부가세포함)	
15세 미만 1인 단가		440원(부가세포함)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안내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제



1365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에 누적된 자원봉사활동 3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 및 할인가맹점 할인혜택을 주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자발적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

- 발급시기 : 연중
- 신청자격 : 1365자원봉사포털 시간 누적 300시간 이상
제주도·시 자원봉사센터등록자원봉사자
- 신청방법 : 본인방문, 우편, e-mail
 - 제주도·시 자원봉사센터, 시 자치행정과, 읍·면·동 주민센터
 - e-mail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1365jejuvc@daum.net
제주시자원봉사센터 nanum3949@v1365.or.kr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sgpnanum1365@daum.net
- 확인 및 발급 : 도·시 자원봉사센터
- 발송 : 등기 우편발송, 직접수령
- 제출서류
 - 일반 및 청소년
 - 발급신청서, 신분증 또는 학생증, 반명함 사진 1매
 - 어린이
 - 발급신청서, 등본 1부(부모 입증 서류), 부모신분증, 반명함 사진 1매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발급신청서, 거소신고증, 반명함 사진 1매
 - 외국인 : 발급신청서, 외국인등록증, 반명함 사진 1매

※ 우편, e-mail인 경우
: 발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1부, 반명함 사진 1매(e-mail인 경우 스캔)
* 본인확인 후 신분증 사본 즉시 파기
* 주소지로 등기 우편 발송 및 본인 방문수령

자원봉사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 및 차감 기준

■ 마일리지 적립 기준

- 누적 자원봉사활동 시간 300시간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적립
-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1시간당 200마일리지 적립(적립한도 없음)
- 타 시·도 자원봉사 전출 등록 시 마일리지 자동 소멸

■ 마일리지 차감 기준

- 자원봉사 마일리지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사용 차감
 - 1마일리지 = 1원

○차감예시

- 제주아트센터 공연 관람료 10,000원
 - 관람료의 50% 마일리지 사용 가능 - 마일리지 5,000포인트 사용
 - 마일리지 5,000포인트 차감
-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관람료 1,000원
 - 관람료 전액 마일리지 사용 가능 - 마일리지 1,000포인트 사용
 - 마일리지 1,000포인트 차감

* 공공시설 할인율에 따른 할인금액보다 보유한 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는 마일리지 사용 불가



■ 카드(예시)



■ 주차쿠폰(예시)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

■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인정 원칙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 자원봉사활동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
- (단, 1개월이 경과 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센터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 출발	센터 등 도착	귀가
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인증 기준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인증원칙
-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공식적 인증기관의 별도의 인증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합산 관리하지 않음
 - ※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기업 직장 자원봉사활동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 우에는 인증 가능
 - ※ 영리추구와 관련된 행사 참여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국군장병의 자원봉사활동

-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 휴가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을 실적 인정
 - ※ 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회장 등 단체대표자(임원)의 단체유지 활동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기준

대분류	소분류	시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급식소 봉사활동	6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8시간
	나들이 보조	8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놀이, 말벗	4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6시간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바자회	8시간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빨래방 봉사활동	6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6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재가세대 이사지원	8시간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2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체육보조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4시간
	호스피스활동	4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4시간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4시간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2시간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4시간	
무료의료봉사	6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6시간	
목욕봉사활동	4시간	
지역사회개발·발전	집짓기, 수리(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8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주민자치활동	8시간
	농촌봉사활동	8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6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	4시간
	불법홍보물 제거	4시간
	환경감시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대분류	소분류	시간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육성·보호	문화체험, 청소년수련 지도	8시간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직업교육 등)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8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4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4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범죄예방 및 선도	범죄예방, 야간방법, 유해환경추방활동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관내 4시간/타지 8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4시간
	차량봉사(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활동)	관내 4시간/타지 8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피해복구활동	8시간
	응급구조활동	8시간
	피해복구참여 대상 급식활동	8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피해지역 모니터활동 및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8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8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4시간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8시간
	공연봉사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활동	4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4시간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소식지 편집 마무리 뒷이야기》

길에서 '봉사' 를 줘다

건강도 챙기고, 쓰레기도 줍는 '나 홀로 봉사활동' 체험기

센터 소식지 제17호 편집이 어느 정도 마감될 즈음 센터 편집을 주도했던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요즘 대세인 '플로깅 체험' 을 제안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봉사활동마저 온택트(ontact), 언택트(untact)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은 이때 사무국 직원들이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길을 나섰다.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5일 토요일, 강문상 사무국장과 김진아 운영지원팀장, 김정미전산담당, 카메라를 둘러싼 이현우 교육담당이 쓰레기봉투와 집게를 들고 서귀포시청 1청사에 모였다. 이 길에 김두만 센터장님도 동행하면서 서귀포시가 원도심을 되살리고자 야심차게 내놓은 하영올레길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체험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인간의 삶 속에는 ‘길’이 숙명처럼 놓여 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이동 수단엔 불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동선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길은 삶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예로부터 길이 없으면 길을 내었고, 길에서 숨 쉬는 이가 잦을수록 그 길 위에는 사람들의 영혼과 각자의 사연을 쏟아냈다.

제주의 길이 유명세를 탄 것은 ‘올레길’이 아닌가 싶다. 바람이 많아 바람골을 막고자 제주에서는 집으로 통하는 길을 구부정하게, 그리고 좁게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길이 ‘제주올레’이다.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마치고 돌아온 언론인 출신 서명숙 이사장이 2007년 9월, 제1코스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26코스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잠수를 하는 해녀가 참고 참았던 숨을 내뿜는 숨비소리와 같이 열광했다. 살아가면서 겪었던 슬픔과 아픔, 삶의 애환을 길 위에도 쏟아내면서 길은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내주었다.

여기에 원도심에 자리한 또 하나의 길을 낸 하영올레는 추억의 숲길이라 불리는 제1코스와 힐링 걷기 2코스, 비밀의 정원 제3코스까지 개장돼 있다. 우리는 제1코스를 걷기로 했다.

법장사 골목길을 지나 걸매생태공원에 접어들었다.

12월에 들어서면서 찬바람의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면서도 쓰레기를 주워야 하겠다는 일념(?)이 앞섰으나 해안변과는 달리 의외로 계곡과 하천, 그리고 시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체험했다.

서귀포 삼매봉도서관 입구에 자리한 우리 센터의 이용해 운영위원 사무실을 찾았다. 조경업에

종사하는 본업답게 들어서는 입구에서부터 온갖 감귤나무와 돌담을 조화롭게 정비해 두어 정겨움이 가득했다. 특히 사무실 한 칸을 무인카페로 조성해 올레길을 걷는 모두에게 휴식공간과 더불어 커피와 빵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었다. 각박한 세상이라는데, 길을 걷다 우연히 만난 오래된 친구와 같은 따뜻한 소식은 마음마저 넉넉해졌다.

서귀포철십리공원에서 내려다본 천지연폭포는 물줄기를 시원하게 내뿜으면서 장관을 이뤘다. 하영올레 표지판과 폭포를 배경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옛 고래공장이 들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새연교와 새섬, 그리고 빼곡히 들어선 선박들의 어촌풍경도 정겹게 다가왔다. 멀리 숲섬, 문섬, 범섬이 간격에 맞춰 나란히 자리해 있는 것도 정겹다.

아랑조을거리 주변에서 점심을 먹고 인근 클린하우스에 수거된 쓰레기봉투를 버렸다. ‘걸으면서 줍는다는 것’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봉사활동도, 그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순간이다.

하영올레의 특징은 시작점에서 도착점이 같은 회귀점이다. 1청사 인근에 위치한 소식지 인쇄처인 오디콤에서 최종 편집회의를 마쳤다.

이제까지의 틀과 지면 규격을 완전히 바꾸고, 스토리 형식으로 나뉘 꾸몄지만, 항상 탈고 뒤에는 허무함이 밀려온다. 그래도 내년에는 더 나은 디자인과 편집을 다짐해보며 허무함을 달래본다. 



사랑나눔

사랑과 봉사와 웃음으로 하나되는 서귀포시!
자원봉사로 만들어 갑시다.



※ 해결해야 할 과제(봉사자 관점에서)

① 플로깅 참가 방법은?

☞ 단순 참가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자원봉사센터(064-738-0716)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워진 쓰레기는 가까운 클린하우스에 버리되, 인증사진을 찍은 후 자원봉사센터(sgpnnum1365.hanmail.net)로 제출하면 봉사시간 또는 활동시간을 실제 활동한 시간만큼 부여해 준다.

③ 중간에 쓰레기 봉지가 가득할 경우 대처 방법은?

☞ 부피가 나가는 페트병 등은 찌그러뜨리는 등 최대한 부피를 줄인다.

④ 주차 방법은?

☞ 1청사 지하 1·2주차장의 경우 휴일은 무료이며 한가한 편이나 평일 이용은 어려우므로 대중교통 이용이 바람직하다.

플로깅 유래

환경운동가였던 에리크 알스트롬은 스웨덴 중부에 있던 오래 시에서 수도 스톡홀름으로 이사한 후 거리와 공원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스톡홀름 시내 거리에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니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고, 이런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만든 웹사이트의 명칭을 '줍다'를 뜻하는 스웨덴어 'plocka upp'과 조깅을 뜻하는 스웨덴어 'jogga'를 조합하여 '플로깅(plogga)'라고 붙였다.



이 활동은 곧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구성하는 이웃 나라인 노르웨이와 핀란드를 거쳐 유럽의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는데,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알리칸테 시에서 이 활동을 전국적인 환경보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단체인 '플로깅 혁명(Plogging Rrevolution)'이 계기가 되어 '플로깅'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플로깅은 이후 순식간에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었으며, 2018년 미국의 뉴욕, 인디애나폴리스, 테네시 등에서 플로깅 행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런 활동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웹사이트(plogging.org)가 구축되었다. 플로깅은 이후 인도, 한국 등 전 세계 100여 개국으로 전파되었으며, 매일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플로깅은 또한 조깅 뿐 아니라 산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도시와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대중적인 스포츠 활동과 연계되는 자연보호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출처: 다음백과)

